**접붙여진 생명**

**9/2 월**

**고전 6:17** 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.

**요 15:1** “나는 참포도나무요,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.  
**요 15:4-5** 내 안에 거하십시오.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,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 
**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**요 3:15-16**  
**15** 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 
**16** 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**딤후 4:22** 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.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렘 23:5** 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. 여호와의 선포이다.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을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현명하게 행하며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하리라.

**렘 33:15** 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이 나게 하리니, 그가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할 것이다.

**9/3 화**

**롬 11:17-18,19-24**  
**17** 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,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,  
**18** 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.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,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 
**19** 그러면 그대는 “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.”라고 할 것입니다.  
**20** 옳습니다.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어졌고, 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.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.  
**21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,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**22** 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.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,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,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라질 것입니다.  
**23** 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,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.  
**24** 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,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!

**갈 2: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갈 6:14** 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.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,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

**9/4 수**

**롬 6:5** 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

**고전 15:45** 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,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.

**요 1:14** 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,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.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.  
**요 1:29** 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.

**요 10:10b**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롬 8:11** 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,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.  
**롬 8:16** 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.

**벧전 3:18b** 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,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.

**9/5 목**

**갈 2: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롬 8:4** 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.

**롬 12:4-5**  
**4** 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,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.  
**5** 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,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.

**빌 3:6** 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,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

**빌 1:20-21**  
**20** 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,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,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.  
**21** 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,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.

**9/6 금**

1. **롬 6:3-5**  
   **3** 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?  
   **4** 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 
   **5** 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
2. **고전 6:17** 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.
3. **롬 5:12** 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,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,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.  
   **롬 5:21** 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,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.
4. **9/7 토**
5. **롬 11:17, 24**  
   **17** 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,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,  
   **24** 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,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!
6. **고후 3: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7. **요 11:25** 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,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,
8. **빌 3:11** 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.
9. **롬 12:2** 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.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,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.
10. **롬 8:29-30**  
    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 
    **30** 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,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,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
11. **9/8 주일**
12. **롬 11:16-17, 22-24, 30-36**  
    **16** 드려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,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.  
    **17** 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, 야생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,  
    **22** 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.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,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,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라질 것입니다.  
    **23** 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,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.  
    **24** 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,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!  
    **30** 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,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.  
    **31** 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,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.  
    **32** 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.  
    **33** 오,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!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,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!  
    **34** 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 있거나,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 있습니까?  
    **35** 아니면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린 적 있어 돌려받을 일이 있겠습니까?  
    **36** 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, 주님을 통하여 있고,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
13. **찬송: 482 (英) 주와 함께 못 박힌 나  (中:365)**